

이 세상 만물은 모두 다 신이다

중성자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방출되며, 그것은 전자가 핵 주위를 회전하게 하는 생명력이다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일찍이 11년 전 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대로 성경 구절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만 안 했다 뿐이지 성경 속에 있는 말이야, 없는 말이야? 있는 말이죠? 시편 82편 6절에 “너희들은 다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죠? 신의 아들이 신일까, 동물일까? 신이죠? 시편 82편 6절에 쓰여 있어요. 다 같이 외워 두세요,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신명기 14장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식일까, 동물 자식일까? 하나님의 자식이죠? 예수만 외아들이라는 게 사람 말이야, 하나님의 말이야? 사람 말이죠?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사람이면 다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구절구절 쓰여 있어요. 아시겠어요?

신명기 14장 1절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자녀라.”라고 기록이 돼 있고 요한 1서 3장 1절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쓰여 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만 말한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라는 건 이 세상 사람들 다 말하는 거죠? 한국 사람만 말한 걸까? (아닙니다) 온 세상 미국 사람이나 소련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사람이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분명히 쓰여 있는데도 예수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

단의 말이야, 참 진리의 말이야? 이단의 말이죠?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신

또 성경 구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은 바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말씀은 곧 생명이요 생명은 곧 빛이요 빛은 곧 성령”이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기록돼 있는 고로 생명 자체가 말씀인고로 생명이 있는 자가 다 동물이죠? (아닙니다) 이제 그대로 다 신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곧 신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신이야, 신 아니야? 그러면 여기 꽃나무는 신이 아니죠? (신입니다) 꽃나무도 신이야. 이제 그대로 이 세상 만물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또렷하게 쓰여 있지만 눈 뜬 장님들이 봐도 그걸 알까, 모를까? 모르는 거죠?

그런고로 오늘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신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적인 말이면 서로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야?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죠?

중성자의 투과력

이 세상 만물은 원소 하나하나가 모여서 물질을 형성하고 있는 거야, 물로 형성된 거야? 원소 하나하나가 모여



구세주 조희성님

가지고 원소의 미립도가 강하면 강한 물질로 이루어지고 그 미립도가 완만하면 물결물결한 물질로 이루어지는 거죠? 원소의 미립도에 의해서 강한 물질과 약한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뿐이죠? 그러나 그 원소 하나하나가 모여서 물질을 형성하는 것만은 공동한 뜻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공동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고로 원소 속에는 핵과 중성자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전자가 뱅뱅

뱅뱅 돌아간다고 그래, 안 돌아간다고 그래? 이 세상 과학자들은 돌아간다는 말만 했지 그 왜 돌아가느냐 하는 말을 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없죠? 마이너스 플러스 전자가 바로 돌아가는 그 이유와 원인이 돌아가는 힘이 있거나 이제 그대로 돌아가는 생명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지 그 왜 저절로 돌아간단 말미 되는 말이야, 말이 안 되는 말이야?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생명력에 의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전자가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력이 생명의 물질이죠? 생명의 물질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중성자속에서 나오는 빛은 납의 두께가 100억 광년이나 되는 것을 투과할 수 있는 투과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논했어, 안 논했어? 이제 그대로 원자폭탄이 폭발하게 되면 바로 가장 투과력이 강한 것이 알파, 베타, 감마선 가운데서 감마선인데 그 감마선이 투과력이 강한 고로 사람의 몸의 세포를 뚫고 지나가는 고로 뚫고 지나갈 때에 모든 세포가 이온화가 돼가지고 전부 죽어, 안 죽어? 세포가 죽는 거죠?

원자폭탄의 위험

일본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에 이제 그대로 길바닥에서 있는 사람을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면 풀썩하고 그냥 재가 끼지는 거예요. 사람이 재가 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로시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란 사실이 있어, 없어요? 놀란 사실이 있었죠? 투과력이 강한 감마선이 이제 그대로 사람의 몸을 뚫고 지나가지만 하면 모든 세포가 이온화 돼 가지고 재가 돼버리는 고로 죽었던 것이 올시다. 그런고로 감마선을 막는 방법은 납을 뚫고는 지나가지 못하는 고로 납을 1미터 정도 깔고 방공호를 구축하면 그 방공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죽어, 안 죽어? 안 죽죠?

이 사람이 장교로 군생활을 할 당시에 화생방 교육을 담당할 고로 이제 그대로

원자 무기에 대한 원서를 미국에서 가져와 번역을 해서 장병들에게 가르쳤던 일이 있었던 것이올시다. 원자폭탄이 터지면 거기에서 알파, 베타, 감마선이 방출돼 나오는데 그 알파, 베타 감마선이라는 건 바로 방사능인데 감마선이 사람 몸을 지나가면 즉사해서 죽는다는 것을 이 사람이 강의를 했던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오직 사는 방법은 방공호를 구축해가지고 납을 1미터 정도만 깔지만 깔면 방사선이 들어올 수가 없는 고로 방공호 안에 들어가면 그 방공호 안에서는 살 수가 있다고 가르쳤던 것이올시다.

중성자에서 나오는 빛은 하나님의 영

그런데 납의 두께가 100억 광년이라면 엄청난 두께죠? 1광년이 태양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인데 100억 광년이라면 100억배가 되는 건데 그걸 측량할 수 있어요? 측량할 수가 없죠?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그대로 그 중성자속에서 나오는 빛은 납의 두께가 무량대수 배 영원무궁토록 한도 끝도 없이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무한대의 투과력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무한대의 투과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일찍이 논한 바가 있었던 거죠? 그런고로 중성자속에서 나오는 빛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 빛 자체가 생명의 물질인 고로 그 생명력에 의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전자가 뱅뱅뱅뱅 돌아간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일찍이 논했던 것입니다.*

1992년 9월 22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욱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지난호에 이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과 같이 계셨던 까닭에 감옥 지기는 요셉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나중에는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일을 맡기고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마시는 술을 맡아보는 관원과 떡을 맡아보는 관원이 불합치 요셉이 들어 있는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밤, 이 두 관원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은 둘 다 격정스러운 얼굴을 짓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궁금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은 왜 두 분의 얼굴이 그렇게 걱정스러운 얼굴이지요?”

“너무도 이상한 꿈을 꾸어서 풀어낼 수가 없군요.”하고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요셉은 “꿈을 푸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하고 말하면서 자기한테 이야기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두 관원은 자기네들이 꾸는 꿈을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꿈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포도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세 가지 있었습니까. 그 때 마침 새 썩이 트고 꽃이 피고 곧 포도송이가 달렸습니다. 그 때 나는 임금님의 술잔을 들고 있다가 포도송이로 술을 짜

서 임금님께 술잔을 바쳤습니다.”

요셉은 이 꿈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서 얼굴에 활짝 웃음을 머금으면서, “참 좋은 꿈입니다. 어디 당신의 꿈을 풀이해 드리지요. 세 가지의 가지는 사흘 후를 말합니다. 이제 사흘만 지나면 임금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그 손으로 임금님께 술잔을 바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꿈 풀이를 듣고 기뻐하는 그 관원에게 요셉은 자기가 감옥에 들어오게 된 내력을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탁하였습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풀려나기면 나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본래 히브리 사람인데, 여기 집주인의 양자로 들어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영롱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임금님께 여쭙어 나도 이곳에서 풀려 나가도록 해주세요.”

“아무렴, 내가 나가면 당신을 돕고 말고.”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잠담했습니다.

이번에는 임금님께 떡을 빚어 드리는 관원장이 자기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3장 야곱의 하나님>>

(2) 바로왕의 꿈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풀이함

“나도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흰 떡이 담긴 세 개의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었습니다. 제일 위의 광주리에는 임금님께 대접하려던 구운 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많은 새들이 그것을 죄다 먹어버렸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요셉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그 꿈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마음을 가다듬고 그 꿈을 풀이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꿈의 뜻은 이렇습니다. 세 광

주리는 사흘 후를 말합니다. 이제 사흘 후에 임금님이 당신을 불러 목을 자르고 당신의 몸을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날아와서 당신의 살을 뜯어 먹을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관원은 요셉의 풀이를 듣고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후 사흘이 지나자 그 날은 바로 임금님의 생일날이어서 온 나라 안은 기쁨 잔치로 들끓었습니다. 그때 임금님은 감옥에 갇힌 두 관원을 불렀습니다. 요셉의 꿈 풀이대로 포도송이에서 포도즙을 내어 술잔에 담아 임금님께 대접하는 꿈을 꾸는 신하는 복직되어 임금님께 술을 바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주리의 흰 떡을 새들이 날아와서 다 썩어 먹은 꿈을 꾸는 요셉의 꿈 풀이대로 나무에 매달려 새들의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용서를 받은 관원은 요셉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1 꿈은 곧 피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요셉이 꿈 풀이를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야곱의 피를 이어받은 까닭입니다. 많은 애굽 사람들이 있지만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피를 간직한 요셉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꿈 풀이를 정확히 할 수 있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죄인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마귀를 이기는 구세주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

(2) 바로왕의 꿈 - 1

두 관원의 꿈이 요셉의 해몽대로 각기 그대로 적중된 날로부터 꼭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한 꿈을 꾸었습니다. 왕이 나일 강가에서 있었으나 일곱 마리의 살진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서는 풀을 뜯어 먹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뒤를 빼가 양상하게 드러나 보이는 흉측한 일곱 마리의 암소가 올라와서는 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는 살진 소를 순식간에 먹어버렸습니다. 임금님은 깜짝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어, 이상한 꿈도 있다.”

다시 잠이 든 임금님은 언덕이 꿈 꾸었습니다. 한 줄기에 무성하고 총실한 일곱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보기에다 아주 탐스러운 것이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 세악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왕은 반짝 눈을 뜨니까 이상하게 마음에 어두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자 임금은 애굽의 유명하다는 모든 박사과 술객을 궁궐에 불러들여 자기가 꾸는 꿈을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임금의 이상한 꿈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술을 맡은 신



바로왕의 꿈

하는 머리에 문득 전에 옥에 갇혔을 때 자기 꿈을 풀어 주던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얼른 임금님께 자기 꿈을 풀어준 요셉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하, 제가 전하의 노여움을 사서 시위대장의 집 옥에 갇혔을 때의 일입니다. 저와 떡을 굶는 신하는 각기 다른 꿈을 꾸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때 그 감옥에 있던 시위대장 양아들이었던 히브리 사람의 젊은이가 저희 꿈을 풀었습니다. 저는 그 젊은이의 꿈 풀이대로 복직이 되고, 떡을 굶는 신하는 죽음을 당했습니다.”(다음호에 계속)* 안젤라